

18.08.06(월)~18.08.10(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83	1,388,506	1.0	9.2	11.3	-0.2	-0.5	-7.4	-3.4	-7.5	-236	81	-336	1,250	7,489
KOSDAQ	785	152,771	2.4	18.0	14.1	-0.5	-3.5	-8.2	-6.9	-1.7	-182	-96	-23	386	2,369
보험	18,127	20,272	0.6	9.3	7.0	2.2	1.2	-5.7	-12.4	-14.2	77	-28	41	21	85
증권	1,761	18,408	0.7	8.4	9.4	-2.5	-5.8	-17.7	-18.1	-11.3	-43	-3	-18	17	111
삼성생명	97,000	19,400	0.6	8.2	7.1	1.9	-0.9	-13.4	-18.8	-22.1	12	0	3	2	14
한화생명	5,110	4,438	0.5	7.8	6.0	0.0	-1.9	-15.0	-22.8	-26.0	0	-1	-1	1	5
ING생명	41,700	3,419	0.9	10.0	9.3	0.5	0.4	-6.9	-22.8	-21.9	0	-0	-0	1	4
동양생명	7,360	1,188	0.5	11.4	4.3	-0.4	0.7	-3.9	-3.0	-3.2	-0	0	-0	0	1
삼성화재	278,500	13,194	1.1	12.5	8.7	4.9	3.5	3.3	1.3	4.3	29	-8	16	6	19
DB손해보험	67,600	4,786	0.9	6.9	13.1	4.0	8.9	13.0	-0.7	-5.1	11	-2	11	6	19
현대해상	36,950	3,303	0.9	5.9	15.6	0.0	3.9	-0.1	-10.7	-21.4	15	-12	10	4	16
메리츠화재	19,100	2,171	1.1	7.0	16.8	2.7	-1.3	-6.4	-18.4	-18.7	4	-2	1	0	2
한화손해보험	7,150	835	0.6	5.7	11.9	1.9	10.0	1.4	-12.6	-12.2	3	0	1	0	1
삼성증권	31,800	2,840	0.6	7.7	8.1	-1.9	-5.5	-13.7	-20.5	-13.1	-12	6	-5	2	13
미래에셋대우	7,950	5,234	0.7	8.4	8.4	-1.7	-4.3	-16.7	-16.9	-13.5	-9	-2	-3	5	39
NH투자증권	12,200	3,433	0.7	8.0	9.1	-6.2	-13.2	-22.3	-15.6	-12.2	-20	2	-13	5	25
한국금융지주	65,900	3,672	0.9	6.4	14.8	-5.5	-17.5	-27.9	-18.0	-4.5	-2	-7	-1	3	22
키움증권	89,800	1,985	1.1	6.9	17.9	-3.4	-10.6	-25.2	-11.5	2.5	-5	-0	2	0	8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하였음. 2분기 실적에서 지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실적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및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함에 따라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 자동차보험료, 이르면 10월 3~4% 인상: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며 이르면 10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4%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상 요인은 인정하지만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인터넷 채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와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등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입장 밝혔음.
	▶ 한화생명, 즉시연금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안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데 이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보험원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였음. 금감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를 주도하는 등 보험사들의 움직임의 대응하고 있음

증권	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IT 업종의 하락,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등의 약세 속에 거래대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시중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ELS 운용 마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금융위, 은행법 개정 대신 인터넷은행 특별법 추진: 금융위, 은행법을 제정하는 대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를 풀겠다는 방침. 또한 정부는 관련해서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라고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음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누계	3Q17		4Q17	1Q18	2Q18	3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9	-1.8	12.4	14.3	15.0	12.4	9.0	8.5	-4.7		8.2	11.8	13.8	13.9	8.8	-36.6
KOSPI	5.4	1.1	6.9	7.8	9.1	7.5	5.5	5.2	-6.5		5.2	6.0	7.0	8.1	5.4	-33.5
KOSDAQ	3.5	-6.1	5.5	6.5	5.9	4.9	3.4	3.4	-1.9		3.0	5.8	6.8	5.8	3.4	-40.9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1	12.8	11.3	12.2	12.5	11.8	10.8	11.1	2.5		8.3	9.8	11.3	11.8	11.1	-5.8
KOSPI	5.7	26.7	5.4	6.0	6.2	6.0	5.5	5.7	2.1		4.0	4.5	5.4	6.0	5.7	-5.3
KOSDAQ	5.5	1.4	5.9	6.2	6.3	5.8	5.3	5.5	2.9		4.3	5.4	5.9	5.8	5.5	-6.3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8	-3.6	1.89	1.85	1.85	1.85	1.83	1.78	-4.1		1.53	1.85	1.89	1.85	1.78	-6.2
3년	2.04	-7.5	2.22	2.22	2.20	2.12	2.13	2.04	-8.5		1.89	2.13	2.22	2.12	2.04	-8.2
5년	2.27	-7.0	2.43	2.49	2.48	2.35	2.36	2.27	-9.7		2.08	2.35	2.43	2.35	2.27	-8.6
10년	2.50	0.4	2.62	2.72	2.70	2.56	2.57	2.50	-7.4		2.37	2.47	2.62	2.56	2.50	-5.9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9	-0.0	6.2	6.4	6.1	6.0	6.1	6.0	-0.1		6.2	6.0	6.2	6.2	6.0	-0.1
미래에셋대우	12.2	-0.4	13.1	13.2	12.8	12.3	12.4	12.3	-0.1		12.7	13.2	13.3	12.8	12.3	-0.5
NH투자증권	7.0	1.0	6.3	6.4	6.4	6.4	6.5	6.8	0.3		5.7	6.4	6.3	6.4	6.6	0.2
한국금융지주	5.5	-0.3	5.5	5.5	5.2	5.1	5.3	5.5	0.1		6.1	5.8	5.7	5.3	5.3	0.1
키움증권	17.1	0.6	17.1	18.5	18.2	17.9	16.9	17.2	0.3		15.3	17.4	17.5	18.2	16.9	-1.3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라화(터키) 폭락 사태로 인하여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전주 금요일 진행되었음. 터키의 내부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 불발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업종은 2분기 실적을 통해 지표의 안정화를 확인하였으며 생명보험업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높은 기저효과를 마무리 하였음. 3분기에는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의 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손해보험업종은 사업비 안정과 손해율 부담 완화를 통해서이고 생명보험업종은 기저효과와 3분기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 처분이익의 기여도 확대 가능성 때문임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요인이지만 시장에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관심도 하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증권	- 전주 금요일 리라화(터키) 폭락으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금주 초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달러지수 상승, 신흥국 통화 약세, 신흥국 주식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연결되며 ELS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 Valuation 매력은 존재하는 상황에서 IB 및 Trading 관련 이익 기여도 확대에 대형증권사의 경우 Brokerage 이익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 변수에 대한 고민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7월 시장 지표의 부진으로 인하여 3분기 증권사 실적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주 본격화될 실적 발표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함
	- 금주 증권업종은 저점을 테스트 하는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8월 14일	중국	7월 산업생산 (YoY)	6.0%	6.3%
8월 15일	미국	7월 근원소매판매 (MoM)	0.4%	0.3%
8월 16일	미국	8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25.7	22.0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자동차 보험료, 이르면 10월 3~4% 인상 (조선비즈)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4% 오를 전망,</p> <p>▶ [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 위반 드러나면 징계" (한국일보) 금감원, 보복성 검사 논란 피하러 추후 예정된 삼성생명 검사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 부활된 종합검사 첫 타깃 될 수도. 과징금·임원 문책 권고 등 예상</p> <p>▶ KB증권, 단기금융업 올해는 힘들다 (글로벌이코노믹) 6월말 신사업 인가 금지가 풀렸으나 최근 내부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되기 전까지 인가 심사가 불가함. 징계 결정에는 3~4개월 소요될 예정으로 내년 증선위 최종 인가 전망</p> <p>▶ 금융위, 은행법 개정 대신 '인터넷뱅 특례법' 추진 (동아)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금융위, 은행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특례법을 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p> <p>▶ 최종구 "車보험료 인하 요인 있어" 온 떼자... '올려야하나' 고민하는 손보업계 (브릿지) 금융위, 인상 요인 인정하되 온라인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바로 인상 움직임에 제동.</p> <p>▶ 현대해상, 영구채 5000억 발행한다 (한경) 자본확충 해외서 국내로 유턴</p> <p>▶ 한투·NH靑, 투자 경쟁 불붙었다 (한국경제) 불티나게 팔린 발행어음... 조단위 자금 마련. 대한항공·한화손보 등 주요 기업 영구채 쏟아져.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우려도</p> <p>▶ 증권사 해외 인프라 자산 급증 속 '인수 후 재매각' 실패 우려 확산 (건설경제) 증권사 해외 인프라 자산 확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액인수도 늘어. 올해 상반기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인프라 자산에 투자한 언더라이팅(총액인수) 규모는 3조5000억~4조원으로 추정. 다만 셀다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권사가 미매각 물량 떠안을 수 있어</p> <p>▶ ING생명 '오렌지라이프'로 불러주세요 (서울경제) 내달부터 사명 변경</p> <p>▶ 시장 바뀐 삼성증권, 대체투자에 힘 쓴다 (더벨) 지난주 IB본부 조직개편 단행, 해외파 사업부장 발탁</p> <p>▶ 홍콩H 20% 급락에 ELS 손실 '공포 확대'... ELS 펀드 80% '마이너스' (디지털타임즈)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이 4배나 늘어난 가운데 H지수 급락으로 올해 설정된 ELS 펀드 중 80% 이상이 이미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p> <p>▶ 한화생명, '즉시연금'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 안해"... 파장 예고 (연합) 법률검토 거쳐 '보험원리 위배' 의견... '삼성생명 거부' 이어 업계대응 주목. 삼성생명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p> <p>▶ 반격 나선 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주도한다 (조선비즈) 홈페이지 메인에 별도 접수 공간 마련 신청 적극 독려. "즉시연금 분쟁 장기화 대비한 청구소멸시효 중단 조치"</p> <p>▶ 금융위 이어 금감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동 (중앙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흘 만에 금감원도 정비요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손해를 상충요인에도 불구하고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및 사업비 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조정폭 제한적일 것으로 보며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언급.</p> <p>▶ 증권사, PEF로 투자한 기업 IPO주관 직접 한다 (한국경제) 금융위, 금융투자 규제 상시개선 체계 마련. 미래에셋대우·NH靑·하나금융 등 자체 PEF 운용 활발한 곳 수혜. IPO주관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 자체 처분도 허용. 이 외에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도 겸영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p> <p>▶ 자산 10조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도 인터넷뱅 대주주 될 수 있게 규제 완화 (조선비즈)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라도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음. 현행 법안대로는 카카오가 카뱅 대주주 못될 가능성 있기 때문</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283		1.0	9.2	11.3	3.1	-0.2	-0.5	-7.4	-3.4	-7.5
	보험	18,127		0.6	9.3	7.0	0.7	2.2	1.2	-5.7	-12.4	-14.2
	삼성생명	97,000	17.1	0.6	8.2	7.1	0.7	1.9	-0.9	-13.4	-18.8	-22.1
	한화생명	5,110	3.9	0.5	7.8	6.0	0.4	0.0	-1.9	-15.0	-22.8	-26.0
	ING생명	41,700	3.0	0.9	10.0	9.3	1.1	0.5	0.4	-6.9	-22.8	-21.9
	동양생명	7,360	1.0	0.5	11.4	4.3	0.3	-0.4	0.7	-3.9	-3.0	-3.2
	삼성화재	278,500	11.7	1.1	12.5	8.7	1.3	4.9	3.5	3.3	1.3	4.3
	DB손해보험	67,600	4.2	0.9	6.9	13.1	1.2	4.0	8.9	13.0	-0.7	-5.1
	현대해상	36,950	2.9	0.9	5.9	15.6	1.2	0.0	3.9	-0.1	-10.7	-21.4
	메리츠화재	19,100	1.9	1.1	7.0	16.8	1.6	2.7	-1.3	-6.4	-18.4	-18.7
	한화손해보험	7,150	0.7	0.6	5.7	11.9	0.9	1.9	10.0	1.4	-12.6	-12.2
	증권	1,761		0.7	8.4	9.4	1.0	-2.5	-5.8	-17.7	-18.1	-11.3
	삼성증권	31,800	2.5	0.6	7.7	8.1	0.9	-1.9	-5.5	-13.7	-20.5	-13.1
	미래에셋대우	7,950	4.6	0.7	8.4	8.4	0.7	-1.7	-4.3	-16.7	-16.9	-13.5
	NH투자증권	12,200	3.0	0.7	8.0	9.1	1.0	-6.2	-13.2	-22.3	-15.6	-12.2
	한국금융지주	65,900	3.2	0.9	6.4	14.8	1.2	-5.5	-17.5	-27.9	-18.0	-4.5
	키움증권	89,800	1.8	1.1	6.9	17.9	2.6	-3.4	-10.6	-25.2	-11.5	2.5
일본	Nikkei225	22,298		1.7	16.0	10.4	2.0	-1.0	-1.3	-2.0	5.0	-2.1
	보험	1,009		0.8	10.3	7.0	0.7	-2.1	0.7	-4.5	2.2	-4.8
	Dai-ichi Life Holdings	4,449	28.5	2.5	51.9	4.7	2.6	-3.3	3.3	13.6	13.2	51.5
	Japan Post Insurance	2,331	12.6	0.7	15.3	4.6	0.1	-2.1	2.6	-10.6	-15.8	-12.0
	Tokio Marine Holdings	5,192	35.1	1.0	14.2	7.3	1.1	-1.3	-0.6	-2.2	6.4	1.0
	증권	382		0.8	9.4	8.2	0.6	-0.9	-2.6	-10.4	-9.8	-12.1
	Nomura Holdings	513	16.9	0.6	7.1	9.0	0.6	-1.2	-4.1	-15.4	-21.1	-22.9
	Daiwa Securities	651	10.0	0.8	10.0	8.6	0.6	-0.8	0.4	-1.6	-8.7	-8.0
	SBI Holdings	2,901	5.9	1.4	12.6	11.9	1.2	-0.2	8.5	-0.7	29.5	23.1
	Hang Seng	28,367		1.3	11.5	12.9	1.1	2.5	-0.6	-8.9	-4.9	-5.2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927		1.3	11.2	12.2	1.2	2.0	-1.3	-11.6	-12.2	-15.5
	보험	147		1.3	11.1	11.3	1.9	4.8	1.8	-9.9	-15.0	-18.3
	China Life	19	86.0	1.3	11.3	12.4	1.4	1.2	-2.2	-15.0	-17.2	-22.0
	Ping An Insurance	72	163.9	2.1	11.7	19.1	1.5	2.6	2.2	-7.4	-8.9	-11.3
	AIA	69	106.5	2.3	19.1	12.9	2.5	4.6	2.5	-4.9	16.8	3.9
	증권	88		1.0	14.3	7.8	52.0	2.7	-4.5	-25.2	-25.9	-29.9
	CTIC Securities	15	28.0	1.0	12.5	8.5	2.0	3.0	1.5	-19.3	-9.9	-5.0
	Haitong Securities	7	13.7	0.6	8.3	7.6	1.8	1.8	-1.4	-29.2	-31.4	-34.0
	Huatai Securities	12	17.5	0.8	10.0	8.5	2.0	5.3	4.6	-22.0	-16.7	-21.1
	S&P500	2,833		3.3	17.6	18.2	3.6	-0.2	1.1	3.9	6.4	6.0
미국	보험	382		1.3	11.8	11.1	#N/A	-1.2	1.1	-1.1	-2.0	-4.9
	AIG	52	46.4	0.7	11.6	6.5	0.8	-2.7	-4.3	-1.2	-13.3	-12.4
	Metlife	45	44.4	0.9	8.6	11.5	0.7	-1.5	1.3	-4.5	0.1	-11.7
	Prudential Financial	97	40.4	0.8	7.9	12.0	0.6	-2.5	1.6	-2.9	-8.6	-15.7
	증권	199		2.1	14.4	13.1	1.3	-0.9	-2.1	-6.4	-3.0	-2.1
	JP Morgan	116	389.0	1.7	12.7	13.5	1.3	-1.2	8.8	1.6	5.2	8.2
	Goldman Sachs	230	90.0	1.1	9.3	12.7	1.0	-1.9	1.8	-5.5	-7.9	-9.9
	Charles Schwab	51	68.4	3.7	20.7	18.8	1.3	0.6	0.3	-14.9	1.0	-1.5
	MSCI Europe	130		1.8	14.5	10.5	1.0	-0.9	0.1	-1.8	4.0	-1.1
	보험	75		1.1	10.7	12.7	1.0	-0.3	2.1	-4.9	-1.5	-2.8
유럽	Allianz	186	91.1	1.2	10.6	11.5	0.9	-0.8	3.8	-2.9	0.4	-2.9
	AXA	22	60.4	0.7	8.8	8.9	3.8	-0.9	5.2	-2.8	-12.2	-11.6
	Prudential plc	1,798	59.4	2.6	11.9	23.5	0.5	2.9	4.5	-6.8	1.6	-5.7
	Munich Re	182	31.0	1.0	10.7	9.0	5.5	-3.2	-2.1	-5.4	2.6	0.7
	증권	72		1.1	14.5	6.5	0.5	-2.0	1.0	-6.6	-4.5	-8.6
	UBS	16	60.2	1.1	11.3	9.1	1.0	-3.5	4.2	-4.5	-12.7	-11.7
	Credit Suisse	15	39.1	0.9	13.1	6.7	0.4	-3.3	2.8	-11.1	-5.1	-11.1
	Deutsche Bank	10	24.3	0.3	22.4	1.0	0.1	-4.3	7.6	-11.5	-17.6	-35.1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84	1,816	1,817	1,897	1,840	1,853	-3.2	-3.3	-11.3	-5.6	-6.9
		3 Year	2.040	2,102	2,092	2,275	2,287	2,134	-6.2	-5.2	-23.5	-24.7	-9.4
		5 Year	2.265	2,355	2,340	2,555	2,535	2,347	-9.0	-7.5	-29.0	-27.0	-8.2
		10 Year	2.496	2,575	2,550	2,777	2,767	2,467	-7.9	-5.4	-28.1	-27.1	2.9
일본	국고채	1 Year	-0.111	-0.110	-0.125	-0.132	-0.152	-0.145	-0.1	1.4	2.1	4.1	3.4
		10 Year	0.101	0.110	0.045	0.053	0.066	0.048	-0.9	5.6	4.8	3.5	5.3
중국	국고채	1 Year	2.787	2,763	3,086	2,901	3,422	3,834	2.4	-29.9	-11.4	-63.5	-104.7
		10 Year	3.557	3,464	3,549	3,701	3,896	3,902	9.3	0.8	-14.4	-33.9	-34.5
미국	국고채	1 Year	2.394	2,408	2,319	2,249	1,876	1,732	-1.4	7.5	14.6	51.9	66.3
		10 Year	2.873	2,949	2,849	2,962	2,851	2,405	-7.6	2.4	-8.9	2.2	46.8
유럽	국고채	1 Year	-0.545	-0.536	-0.546	-0.557	-0.557	-0.611	-0.9	0.1	1.2	1.2	6.6
		10 Year	0.317	0.408	0.320	0.557	0.745	0.427	-9.1	-0.3	-24.0	-42.8	-11.0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어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